

여행의 추억을 글로 오래 간직하려면?

이름 _____ 날짜 _____ 맞힌 문제 _____ / 20

쉬움 · 개념 확인 (1~8번)

1 쉬움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겪은 일과 생각·느낌을 쓴 글은?

① 논설문

② 기행문

③ 설명문

④ 광고문

2 쉬움 기행문에서 여행한 차례나 과정을 _____ 이라고 해요.

3 쉬움 기행문에서 여행하며 보거나 들은 것을 _____ 이라고 해요.

4 쉬움 기행문에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_____ 이라고 해요.

5 쉬움 기행문에는 여정, 견문, 감상이 골고루 들어가야 한다.

○

X

6 쉬움 "아침 8시에 고속버스를 타고 강릉으로 출발했다."는 어떤 요소일까요?

① 감상

② 견문

③ 주장

④ 여정

7 쉬움 "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다."에서 '가슴이 벅차올랐다'는 어떤 요소일까요?

① 감상

② 여정

③ 견문

④ 근거

8 쉬움 기행문의 처음 부분에는 여행을 마치며 든 전체적인 느낌을 쓴다.

○

X

보통 · 생각해서 풀기 (9~16번)

9 보통 기행문 문장과 요소를 선으로 이으세요.

1. 점심을 먹고 케이블카를 타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.

●

● 가. 견문

2. 산꼭대기에서는 마을의 지붕들이 장난감처럼 작게 보였다.

●

● 나. 감상

3.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내 걱정도 작게 느껴졌다.

●

● 다. 여정

10 보통 다음 글에서 견문에 해당하는 문장은?

"① 오전에 민속촌에 도착했다. ② 초가집 마당에서 아저씨가 짚으로 짚신을 엮고 계셨다. ③ 손으로 하나하나 엮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다. ④ 다음으로 전통 놀이 마당으로 갔다."

① ①

② ②

③ ③

④ ④

11 보통 관광지나 문화재에서 그곳에 대해 설명해 주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나요?

답: _____

12 보통 기행문의 짜임에서 '가운데' 부분에 들어갈 내용은?

① 여행을 떠나게 된 까닭

② 여행 전체를 돌아본 다짐

③ 여정에 따라 본 것과 느낀 것

④ 여행 가방에 챙긴 물건 목록

13 보통 다음 밋밋한 감상을 생생하게 고쳐 쓰세요.

"폭포가 멋있었다."

답: _____

14 보통 기행문을 생생하게 쓰기 위해 여행 중에 하면 좋은 일로 알맞지 않은 것은?

① 안내판의 내용을 메모한다.

② 사진을 찍어 둔다.

③ 본 것과 느낀 것을 짧게 적어 둔다.

④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나중에 기억에만 의지한다.

15 보통 가운데 부분은 장소가 바뀔 때마다 문단을 나누어 쓰면 읽기 쉽다.

○

×

16 보통 기행문과 일기의 차이로 가장 알맞은 것은?

① 기행문은 여행을 중심으로 여정·견문·감상을 쓴다.

② 기행문에는 느낌을 쓰지 않는다.

③ 일기는 반드시 여행지에서만 쓴다.

④ 기행문은 남을 설득하려고 쓴다.

도전 · 한 걸음 더 (17~20번)

- 17 도전 가 본 곳(공원, 시장, 박물관 등) 한 곳을 떠올려 여정, 견문, 감상이 모두 들어간 문장을 각각 한 문장씩 쓰세요.

- 18 도전 다음 기행문에 부족한 요소를 쓰고, 그 요소를 넣어 한 문장을 덧붙이세요.
"아침에 수목원에 도착했다. 먼저 장미 정원에 갔다. 그다음 온실로 갔다. 마지막으로 연못을 보고 집에 왔다."

- 19 도전 다음 기행문의 처음 부분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?

- ① 박물관을 나오며 우리 역사가 더 자랑스럽게 느껴졌다. ② 전시실 한가운데에 커다란 금관이 놓여 있었다.
③ 방학 숙제로 우리 지역의 역사를 조사하다가 직접 박물관에 가 보기로 했다. 출발하는 날 아침, 마음이 무척 설렘다. ④ 금관을 보고 나서 토기 전시실로 이동했다.

- 20 도전 기행문의 끝부분을 두세 문장으로 쓰세요. (여행을 마치며 든 생각과 느낌, 다짐을 넣어 쓰세요.)

1. ② 여행의 기록을 담은 글은 기행문이에요.
2. **여정** 언제,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가 여정이에요.
3. **견문** 보고 들은 것이 견문이에요.
4. **감상** 생각이나 느낌이 감상이에요.
5. **0** 세 요소가 골고루 있어야 좋은 기행문이에요.
6. ④ 언제, 어디로 떠났는지를 나타내므로 여정이에요.
7. ① 본 것에 대한 느낌이므로 감상이에요.
8. **X** 처음에는 여행을 떠나게 된 까닭이나 떠날 때의 마음을 쓰고, 전체적인 느낌은 끝부분에 써요.
9. **1-다, 2-가, 3-나** 이동한 과정은 여정, 본 모습은 견문, 느낌은 감상이에요.
10. ② ②는 여행하며 본 모습이므로 견문이에요. ①과 ④는 여정, ③은 감상이에요.
11. **해설사** 문화재나 관광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을 해설사(문화 관광 해설사)라고 해요.
12. ③ 가운데 부분에는 장소를 옮겨 가며 견문과 감상을 자세히 써요.
13. **하얀 물줄기가 우렁찬 소리를 내며 쏟아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다.** 모습, 소리, 느낌을 자세히 쓰고 왜 그렇게 느꼈는지 담으면 정답이에요.
14. ④ 기록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잊기 쉬워요.
15. **0** 여정에 따라 문단을 나누면 여행의 흐름이 잘 드러나요.
16. ① 기행문은 장소를 옮겨 다니는 여행을 중심으로 쓰는 글이에요.
17. **여정: 토요일 오후에 동생과 함께 동네 전통 시장에 갔다. / 견문: 떡집 앞에서는 갓 찐 떡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. / 감상: 고소한 냄새를 맡으니 시장이 마치 큰 부엌처럼 느껴졌다.** 세 요소가 알맞게 들어가면 정답이에요.
18. **부족한 요소: 견문과 감상 / 덧붙인 문장: 온실 안에는 내 키보다 큰 선인장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, 사막에 온 것처럼 신기했다.** 여정만 있고 본 것(견문)과 느낌(감상)이 없어요. 둘을 넣은 문장을 쓰면 정답이에요.
19. ③ 여행을 떠나게 된 까닭과 떠날 때의 마음이 들어 있어 처음 부분으로 알맞아요.
20. **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늘 본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다. 책에서만 보던 문화재를 직접 보니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더 크게 느껴졌다. 다음에는 다른 지역의 문화재도 찾아가 보고 싶다.** 여행 전체에 대한 생각과 느낌, 앞으로의 다짐이 들어가면 정답이에요.